



「모든 삶이 보호받는 서울」을 위한

서울시 자살예방 종합계획

2013. 3.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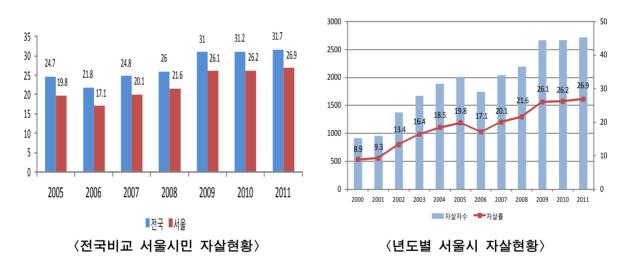
「모든 삶이 보호받는 서울」을 위한

서울시 자살예방 종합계획 보고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문화조성 및 위기대응체계 마련, 주민밀착형의 자살 예방 전달체계 마련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종합적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

□ 서울시민 자살실태

- 서울시 자살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으나 지난 10년간 약 3배 증가
 - '11년도 10만명당 자살률 26.9명, 총 2,722명, 하루평균 7.5명자살



- OECD회원국 평균(12.9명) 및 주요 도시와 비교시 높은 수준
 - '09년기준 뉴욕 5.5명, 런던 9명, 홍콩 15.2명, 동경 23명
-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별 지역간 자살률 격차 발생
 - 강북구(37.7명), 종로구(26.8명), 서초구(19.2명) 등 자치구간 자살률 격치발생
 - '05년 '10년 6년간 현황분석 결과 같은 자치구내에서도 동별 자살률 차이
- 인구학적 계층 및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자살률 격차 발생
 - 65세 이후 노인자살률 심각, '06년이후 노인자살률 지속적 증가추세
 - 성별 자살률 격차가 점차 커지며 '11년 남성 · 여성간 자살률 2.25배 차이
 - 지난 10년간 교육수준(중졸이하, 대졸이상)에 따라 자살률 격차 심화

□ 자살의 특성

- 자살원인은 생물학적, 경제사회적, 심리적, 개인적 특성 등 다면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살행위 또한 복잡미묘하고 파노라마식 연속성을 지니고 있음
- 한명의 자살자로 수십배 더 많은 예비 자살자수가 존재하고 있어 자살 문제가 한 개인 고유선택이라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 관점과 이해 필요

□ 자살예방 정책의 한계

- 국내·외에서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다른 선진국가 및 국내 보건복지부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그 간의 서울시 자살예방사업을 평가하고, 다른 선진국가 및 국내 우수 사례를 통합하여 가장 실효성 있는 서울시 대책방안 마련 필요

∏ 추진방향

□ 추진방향

- 자살위험자 발견을 위한 다층적 체계구축, 민감성을 높여 조기발견, 조기개입
- 자살 고위험 지역을 선정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집중적 개입
- 대상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적 서비스 지원 : 의료적 개입과 사회복지적 개입 추진
- 서울시 자살 원인과 특징을 분석하기 위한 기반 구축

□ 추진체계



V

목표 및 정책과제

□ 사업추진 체계도

모든 삶이 보호받는 서울

장기 목표

2020년까지 자살자수 50% 감소(1,360명)

사업 목표 자살자수: 2,722명('11년) → 2,500명('13년)→ 2,000명('15년)

자살률(10만명당 자살자수) : 26.9명('11년) → 24명('13년) → 20명('15년)

정책 과제1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민관협력 체계 구축

- 광역(서울시)단위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 지역(자치구)단위 민관협력체계 구축

정책 과제2

자살위험군 밀착적 예방활동 강화

- 자살다빈도 지역 및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
- 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다층 및 중층적 관리체계 강화

정책 과제3

자살시도 대응 강화 및 2차 확산 방지

- 자살시도자 및 유족에 대한 서비스 강화
- 유족서비스 연계한 자살자 심리적부검 시범추진

정책 과제4

연령대별 특화된 자살예방사업 추진

- 청소년, 청장년, 어르신 등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서비스 지원

정책 과제5

자살예방 생명존중 문화 조성

- 자살예방지원조례 개정을 통한 적극적 생명존중 문화 확산
- 자살보도규제를 위한 '자살보도 권고안' 마련

지역사회 자원의 총체적 연계 및 활용

공공기관

자살예방센터 자치구청,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공공의료기관 민간기관

학교, 복지관 종교단체, 시민단체 민간의료기관 시민

자원봉사 일반시민

정책1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민관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발굴과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적 접근을 통해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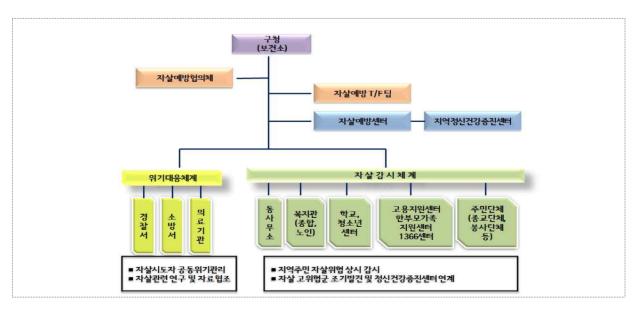
□ 광역(서울시)단위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 서울시-주요기관 · 단체간 MOU협력 체결
 - 협약체결일 : 2012. 4. 3(수)
 - 협약체결대상 : 총 11개 기관 및 단체
 - ▷ 서울지방경찰청, 의약인단체(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간호사회, 약사회), 종교단체(기독교(2개종), 천주교, 불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서울시 타기관·단체·부서별 협력내용

구분	기관 · 단체 · 부서별	주요협력사항
외부	경찰, 소방, 응급의료기관, 전문가단체, 종교 및 시민단체, 언론사	민관협력 자살위기 공동대응체계 구축 생명존중 사회문화조성
내부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건강증진과 창업취업지원과, 자활지원과, 여성가족정책담당관, 학교지원과, 도로시설과, 주택건축정책과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의뢰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지원

□ 지역(자치구)단위 민관 협력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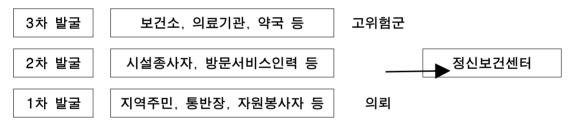
- 자살(의)시도자에 대한 신속한 위기대응으로 시민 생명보호
- 보건-복지 통합적 자살감시체계를 통해 자살고위험군 발견 및 사전예방

정책2

자살위험군 밀착적 예방활동 강화

지살다빈도지역 및 고위험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살의도를 조기에 발견 하고 신속한 개입도모

- □ 자살다빈도 지역 및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
 - 25개 자치구별 3-4개동 집중관리지역 선택
 - 영구임대단지, 쪽방촌, 저소득 외국이주민 밀집지역등 86개동
 - 독거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주민,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선정
- □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관리강화
 - 다층 · 중층적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굴체계 구축
 - 주민밀착 서비스 제공인력 117,000명 전문교육 후 게이트키퍼 활동 ▷ 지역통반장, 복지기관종사자, 어르신돌보미, 방문건강관리 인력 등 포함



- 자살예방을 위한 시민자원봉사단 육성
 - 상처입은 치유자(wounded healer) 2.000명 게이트키퍼 활용
 - 치유자들의 자발성 지속화 유지 및 사회적 확산도모

정책3 자살시도자 대응 강화 및 2차 확산방지

- □ 자살시도 위기대응 체계 강화
 - 위기상담전화(1577-0199) 및 민간기관 3자간 통화체계 구축
 - 다산콜(120). 생명의전화. 사랑의전화. 경찰(112). 소방(119) 연계
 - 전화연결 지체해결 및 전문상담시 자살예방센터 연계
 - 자살시도자 위기관리를 위해 경찰-소방-자살예방센터 긴급출동 지원
 - 저소득층 응급의료비 지원
 - 외상응급 치료비, 정신과 외래치료비, 입원비 등 최대 210만원

□ 2차 자살폐해 방지

- 응급의료센터 내원 자살시도자 관리체계 강화
 - 응급의료센터와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전담팀 운영
- 자살유족 정서지원서비스 강화
 - 자살유족 전문상담팀 구성·운영 : 방문서비스 제공
 - 자살유족 자조모임 '자작나무' 운영강화
 - 지역사회내 유족상담서비스 확대 : 3개소('11년)—8개소('12년)—30개소('13년)

정책4 생애주기별 특화된 자살예방사업 추진

□ 어르신 자살예방사업

- 1:1결연 추진을 통한 독거어르신 정서적 지원
 - 관내 학교, 종교기관, 민간기업, 병·의원 등 12,500명
- 방문돌봄인력을 활용한 고위험 어르신 조기발견 및 센터의뢰
 - 사랑의 안심폰(Telecheck)서비스 지원: 1인 10명 연계하여 안전확인
- 민간단체 공모사업 추진 : SIB지원방식 도입
- 어르신 자살예방 범시민적 인식개선사업 : 노인복지관 공동캠페인

□ 청장년 자살예방사업

- 고용불안정 대상자를 위한 자살예방프로그램 제공
 - 서울시자살예방센터와 고용센터 간 자살고위험군 의뢰체계 구축
 - 서울시 신용회복사업 및 자활사업 연계하여 취업알선, 임대주택 지원 등
- 위기가정 및 폭력피해여성 보호강화
 - 여성긴급전화(1366)와 1577-0199연계로 전문상담서비스 지원
 - 여성지원센터를 통해 산후우울증 및 자살고위험 여성 의뢰체계 구축

□ 청소년 자살예방

-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및 의뢰 강화
 - 헬프콜(#1388)연계, 고위험청소년 사례관리, 인터넷 유해사이트 감시
- 학교내 학생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활동
 - 마음건강학교 운영, 사후중재프로그램 '희망의 토닥임' 활성화

정책5

자살예방 생명존중 문화조성 확대

- □ 자살보도 규제를 위한「자살보도 권고안」마련 및 자살자 인권보호□ 생명존중 및 정신건강증진 시민인식개선 캠페인 · 포럼추진
 - 정신건강의 날(4월), 자살예방의날(9월) 노인의날(10월) 연계추진
- □ 문제해결수단으로서의 '음주 행태' 개선사업
 - '건강음주 희망프로젝트' 추진. 연말 절주캠페인(12월)
- □ '정신건강지킴이' 명예대사 선정 및 홍보활동
- □ 시민대상 자살예방 온라인 서비스 강화
 - 마인드스파(mindspa.kr)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자가검진 및 상담
- □ 서울도시 특성을 살린 서울형 마을공동체와 연계
- □ 자살예방을 위한 물리적 환경조성 강화

Ⅳ 연차별 계획

□ 추진계획

주 요 사 업	2012년 (도입기)	2013년 (확대기)	2014년 (정착기)
자살 위기대응 지원체계 구축	광역	25개구	25개구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서비스 제공	5개구	25개구	25개구
자살시도자 및 유족 2차 피해방지	광역	25개구	25개구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사업	_	광역(시범)	25개구
생명존중 환경문화조성	광역	민관협력	민관협력

□ 소요예산

주 요 사 업	투 자 수 요(백만원)			
구 표 자 ᆸ	계 (백만원)	2012	2013	2014
계	9,136	1,026	3,560	4,550
자살 위기대응 지원체계 구축	1,570	420	500	650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서비스 제공	5,865	365	2,500	3,000
자살시도자 및 유족 2차 피해방지	180	20	60	100
자살사망자 심리적 부검 실시	600	_	200	400
생명존중 환경문화조성	921	221	300	400